

## 외신 동향

### □ The world's biggest economic problem (Economist 14.10.25)

#### ○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기가 점차 가시화되며 세계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

- 유로존 8개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6년 만에 재차 경기침체 국면에 봉착

\* 지난 9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0.3%에 불과한 수치로 내년에도 추가 하락이 예상

#### 디플레이션 위험 (The pendulum swings to the pit)



- 미국, 영국, 유로존 모두 물가상승률이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인 2%를 하회하고 일본도 소비세인상 효과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저조하며 중국 또한 인민은행의 4%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2% 수준
- 최근 유로존의 향후 5년간 예상 물가상승률도 1.82%까지 하락(Barclays)

-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례와 비교할 때 유로존의 상황이 더욱 우려

\* '잃어버린 10년' 기간 동안 일본의 실업률은 5.5% 수준이었던 반면, 유로존 실업률은 11.5%로 2배 이상 높은 수준

#### ○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위험하지만 디플레이션이 경제에는 더욱 치명적

- 기업과 가계가 물가하락을 예상하면 소비와 투자를 연기하고 이는 수요감소로 인한 경기하강과 물가하락을 더욱 가속화 \* 예) 미국의 경제대공황(the Great Depression)
- 디플레이션에 접어들면 채무자의 실질 부채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기업이 생산/인력을 감축하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여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연결

○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은 비전통적 수단인 양적완화 정책만 활용이 가능

- 선진국의 단기금리는 이미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불가능
  - \* 지난 9월 ECB는 기준금리를 기존 0.15%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0.05%로 0.1%p 인하하고 자산유동화증권(ABS)과 커버드 본드(CB) 매입 등 비전통적 금융완화 조치 시행을 시사
  - \* 시중은행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는 기존 -0.1%에서 -0.2%로 인하는 등 마이너스 예금금리까지 도입

○ 더욱이 유럽은 근본적인 경기 체질이 악화되고 과도한 긴축정책으로 어려움이 가중

- 인구구조 변화, 과도한 부채 문제,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중첩
-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됨에도 성장 친화적인 구조개혁보다는 정부 적자 감소를 위한 긴축정책을 지나치게 강조
  - \* '07-'13년 기간 동안 유로존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66%에서 93%로 상승

○ 유럽경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 등 개별국가 차원의 자멸적인 (self-destructive)정책을 중단하고 유로존 전체 차원에서의 win-win정책 모색이 필요

- ① 유럽중앙은행(ECB)은 국채 매입을 시행하고
- ②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재정긴축의 속도를 낮추고 구조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
- ③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독일이 선제적으로 인프라 투자지출을 늘리고
- ④ EU는 재정적자 규정에서 투자지출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의(redefine) 필요

⇒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에는 정치적 의지(political will)가 매우 중요

- 경제가 한번 디플레이션에 접어들면 회복하기 매우 어려움을 상기 할 필요